



[산업] KT
구리선 기반
10기가급 인터넷 추진
05



Economy

코스피 2090.73 (-4.68)	코스닥 719.13 (-3.12)
금리 (미국 3년) 1.49 (+0.02)	환율 (원/달러) 1186.50 (+1.20) (17일)

총선 의식?... 여권, 최저임금 이견에 내홍 조짐

최운열 등 민주당 일부의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건의
자영업자 어려움 장기화에
최저임금 위반 600건 달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내 이해찬 대표,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 송영길 의원 /연합뉴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견이 감지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한 것이다. 지도부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인 민주당 상황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관련기사 2, 3면〉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봤다”며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이해찬 대표에게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최정호위원장이 지도부에 강조한 것이다. 최정호위원

장이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 당론을 채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한 몫 한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실제 작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처리는 593건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세계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추진으로 그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18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매해 증가했다.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2018년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고 접수건 역시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2018년 9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어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선 최정호위원장뿐 아니라 송영길 의원 역시 최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리틀 태극전사 금의환향

2019 FIFA U-20 월드컵 첫 준우승을 달성한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17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가업승계 포기... 中企 매물 쏟아진다

KMX, 4월 M&A 매물 120건 달해
세금·규제 높아 가업승계 포기 증가

중소기업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월 최대 매물이 30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최대 90건까지 늘더니 올해엔 월 기준으로 100건이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특히 가업승계 포기형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금부담과 경영권 승계 관련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7일 한국M&A거래소(KMX)에 따르면 지난 4월 KMX로 들어온 M&A 매물은 12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월 100건 이상의 매물이 꾸준히 들어오

고 있다. 이는 2016년 월 2~30건, 2018년 월 8~90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KMX에 쌓여있는 매물만 3500건에 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업승계 대신 매물로 내놓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KMX로 기업 매도를 의뢰한 730개 기업 중 118개(16.2%)사가 가업승계를 할 수 없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KMX는 향후 2~3년 내 가업승계형 M&A 비중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현 KMX 회장은 “높은 세금과 과세특례제도의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고 있다”면서 “최근 7080세대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가 가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업계는 M&A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 매물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M&A 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이미 삼성증권은 KMX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매물을 공유해 기업 매칭에 나서고 있다. 매도기업 중에서도 우수기업을 발굴해 M&A 대신 성장을 지원하기도 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社 告

metro경제
fftk 2019
Future Food-Tech Korea

푸드테크 혁신시대, 글로벌 푸드 투자전문가 한자리에

풍요로워진 세상과 기술의 발달은 더 맛있고, 안전하고, 보기에 좋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컨버전스는 식품이 문화는 물론 산업과 과학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은 미래기술(IT, BT, NT)과 만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식품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자(Value-Creator)입니다.

2019 Future food-tech Korea는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향 및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알고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물류, 옴니채널, 소셜미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확장을 통한 글로벌 방향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식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혁신적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와 식품산업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Future Food-Tech Korea (FFTK 2019)
- 주 제 :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4:00~17:00 (한-영 동시통역)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 세션강연 :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이윤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02)721-9841, 이메일 : forum@metroseoul.com (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 등록 : <https://sites.google.com/a/acres.co.kr/fftk2019/>
- 참 가 비 : 11만원(학생은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주 관 : ㈜에이커스

metro

우리금융, 혁신기업에 33조 지원 (5년간)

‘혁신금융추진위’ 1차 회의

우리금융그룹은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혁신금융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33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5월15일 손태승 회장(사진)이 위원장을 맡고 그룹사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그룹사 임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신지원



▲투자지원 ▲여신제도개선 ▲핀테크지원 등 4개 추진단을 두고 분야별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주사에 그룹의 혁신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미래금융부’와 디지털혁신을 총괄할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한 바 있다. <2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